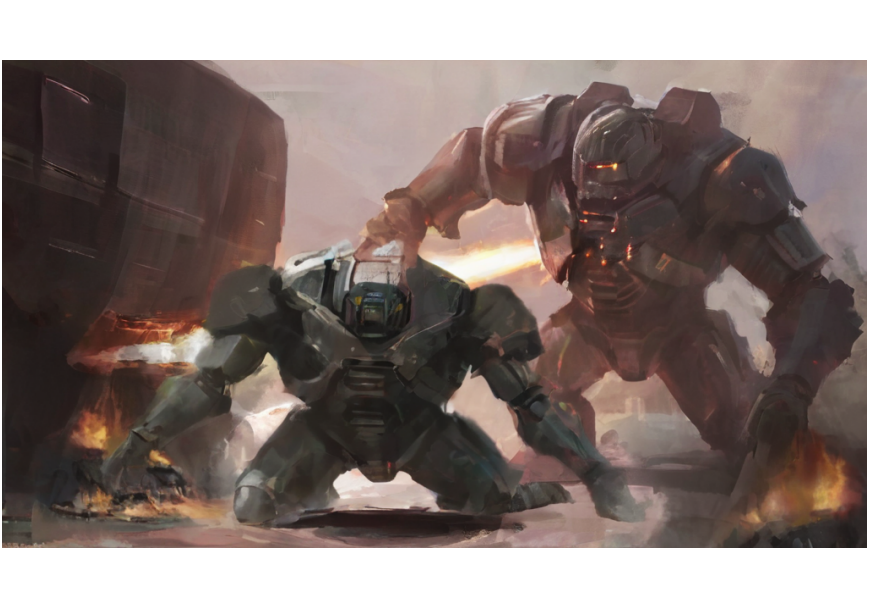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30

❖



은성의 말은 폭주 상태가 된 동녘에게 조금도 전해지지 않았다. ZZBB52는 마치 야수처럼, ZZBB51의 외갑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ZZBB51의 장갑이 뜯기며, 콕핏 안이 드러났다. 은성이 요동치는 동공으로 ZZBB52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

폭주 상태가 되어 자의식을 잃은 동녘은 ZZBB51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ZZBB51과 신경이 연결된 은성은 마치 자기가 목에 졸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지마, 안돼'라 연신 외쳤지만, 동녘에게는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안 돼요, 아버지! 제발!"

목을 졸리던 은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은성이 '아버지'라 외치는 것을 듣는 순간, 동녘의 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동녘이 목을 조르던 손을 거두었다. 은성이 눈물 맺힌 눈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는 날 죽일 수 없어요. 고통스럽게 대했지만."

바로 그때, ZZBB51의 팔에서 엔진이 가동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엔진의 추진을 받은 팔이 ZZBB52의 복부 장갑을 강타하며, 장갑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다.

박살난 콕핏의 파편이 동녘의 복부를 찔렀다. 동녘은 떨리는 손으로 복부를 강타한 파편을 뽑았다.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을 향해 무너졌다.

서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동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서현이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은성아, 엄마를 부탁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동녘은 정신을 잃었다.

❖

"아냐!"

하얀 방에 한재호가 앉아 있었다. 이 추상적인 공간의 정체는 은성의 내면을 컴퓨터 연산으로 시뮬레이션 한 공간이었다. 한재호는 은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헤드셋은 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사라졌다.

애초에 헤드셋은 없었다. 이 공간 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 된 결과물에 불과했다. 한재호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난 한재호야! 은성이 아니라고!"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은성이 한재호가 앉아있는 하얀 방의 중심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한재호가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권총을 든 것은 은성도 마찬가지였다. 한재호가 은성에게 뭐라 말을 하려는 순간, 은성은 가차 없이 한재호의 머리를 쏘았다.

한재호는 바닥에 무너지는 동시에 사라졌다.

은성에 손에 들려있던 권총은 어느새 헤드셋으로 변해 있었다. 은성은 재호가 앉아있던 곳에 앉아 헤드셋을 장착했다.

❖

정신을 차린 은성은 호흡을 가다듬더니, 증강현실 고글을 조작했다.

[휴먼넷 가동 종료]

오리엔티스 기지 안 메일 컴퓨터실에 거대한 텍스트가 떠올랐다. 굉음을 내며 작동하던 메인 컴퓨터의 가동이 멈추자, 오리엔티스 기지 옥상의 안테나 접시가 고개를 숙였다. 스타링크 위성 또한 연산을 멈추고 다시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검게 물들었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리둥절해 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들이었다.

은성의 주변을 맴돌며 붉게 빛을 발하던 캣츠아이도 빛이 사그라들더니 바닥으로 힘 없이 추락했다.

은성과 서현이 다급하게 ZZBB52 뒷편으로 달려가 해치를 열고 콕핏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은성이 동녘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다. 서현도 오열하며 동녘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코카와 덕현이 다가와 동녘을 깨우려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아직 못한 얘기도 정말 많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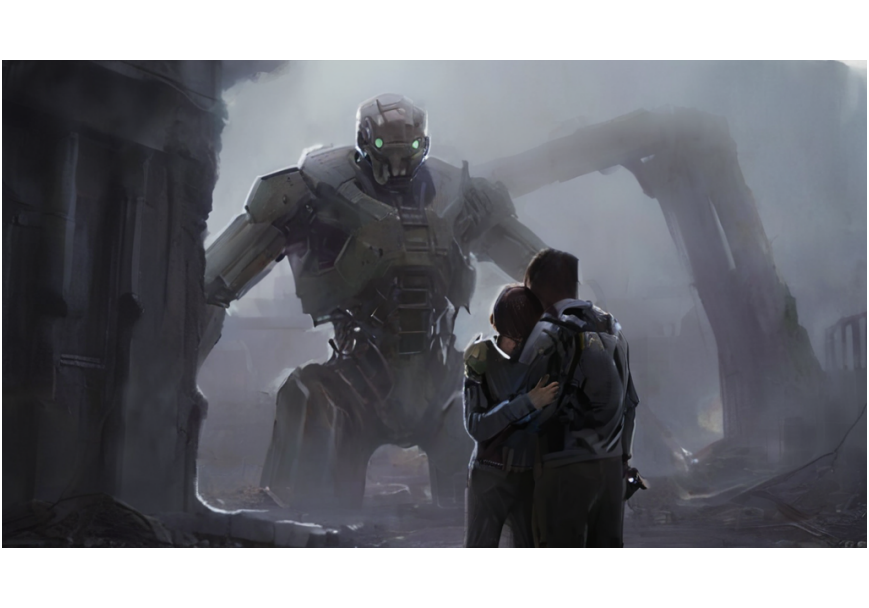
서현이 눈물을 흘리며 동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이상한 감촉이 가슴에서 느껴졌다. 누군가가 주무르는 듯한? 서현은 고개를 들고 밑을 내려보았다. 동녘의 손이 서현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다. 놀란 서현이 동녘의 뺨을 후려쳤다.

동녘이 서현의 싸대기를 맞아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베실베실 웃었다.

"이걸 두고 벌써 죽기엔 이르지."
"그냥 죽어."

문득 동녘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깨달은 서현이 동녘을 와락 안으며 말했다.

"아니 죽지 마, 살아 돌아와서 고마워…."



❖

제복을 입은 여자가 끝이 보이지 않는 도서관을 걷고 있었다. 도서관 한 가운데에 책을 읽다 말고 엎드려 자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도서관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형상이었다. 여자는 엎드리고 있는 남자 앞에서 멈추더니, 그 남자를 깨우기 시작했다.

"일어나세요, 아빠."

남자가 부스스 일어나 자기를 깨운 사람이 누군지 보았다.

"응? 코카, 네가 여긴 웬일이냐?"

제복을 입은 여자의 정체는 코카였다. 남자가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며 말했다. 코카가 말했다.

"아빠, 여긴 제 의식의 공간이에요. 아빠의 의식을 여기 몰래 숨겨놨었거든요."

그제야 남자는 자기가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컴퓨터를 통해 연산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공간이었군. 남자, 아니 서창은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서창은 자기 몸을 살폈다.

"근데 내 몸이 살아있는 거냐? 왜 의식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 클론에 의식을 이식했거든요."

서창이 발끈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코카가 옆에 있는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동녘이었다.

"동녘아, 네가 날 클론한 거냐?"
"네."
"내가 하지 말라고 누누히 말했지 않냐!"
"지금 토론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셔도 괜찮죠?

옆에 있던 코카가 거들었다.

"이미 클론은 완성되어 있고 아버지 의식만 옮기면 끝이에요."

서창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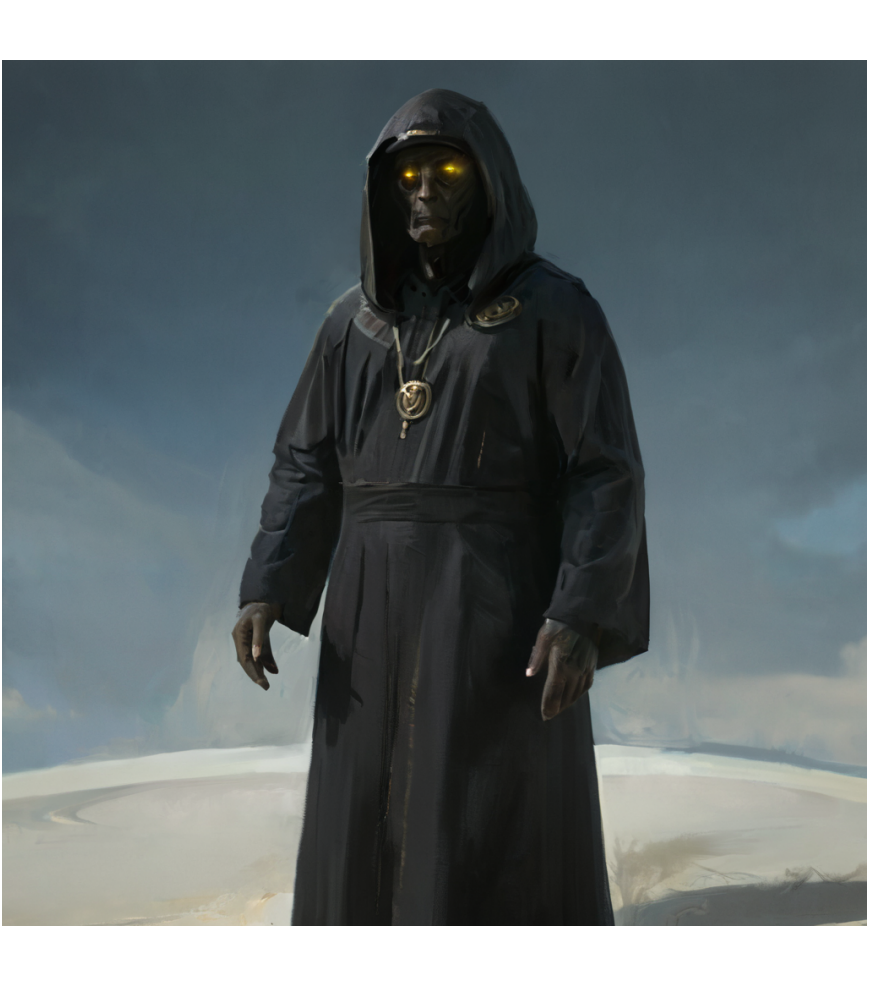
"나는 싫다. 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완전한 의식의 이전은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가능해졌어. 엔지누스의 비밀을 알아냈거든."

동녘의 목소리에서 지후가 느껴졌다. 서창이 놀랄 틈도 없이, 동녘이 지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이유가 있어. '그들'이 돌아왔거든.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나려 해."
"에녹기사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 더 상위의 존재."

동녘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외계인들이 돌아왔어. 에녹기사단이 신이라 부르는 이들이 말이야."



Continued to ep.31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